

## 법 어

**전국의 청년 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활기찬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미래가 숨쉬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한불교청년회 창립 91주년을 맞이하여, ‘청년불자여! 푸른 파도처럼 일어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실시하는 제30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 동참하신 청년 불자 여러분들의 건승을 부처님의 명호로써 축원합니다.

**청년 불자 여러분!**

작년 12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종교편향정책을 시정시키고 우리 민족의 얼을 지키고자 하는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실천하는 청년 불자들의 활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불자 33대 서원’을 세워 수행과 기도에 정진하면서 각 분야에서 ‘자성과 쉼을 위한 5대 결사’를 실천하기 위한 진심어린 노력과 대중적인 활동을 깊이 치하합니다.

법화경에 ‘일체세간법 개시불법(一切世間法 皆是佛法)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세간의 일체는 모두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이란 인간세를 떠나서,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깊은 산에 들어 홀로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한국불교를 바라보면서, 무엇이 부족하였고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성과 쉼을 위한 5대 결사’는 우리 불교가 처한 현실을, 누구를 탓하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를 돌아보아 성찰하자는 것에 그 시작이 있습니다. 또한 수행과 기도정진을 바탕으로 내적 변화를 통한 사회의 각 분야에서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여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내고 한국불교의 자존과 존엄을 되살리자는 것입니다. 국민과 불자들에게 신뢰받는 국민종교로 올곧게 바로 서고, 힘차게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교중흥을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시기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운명을 걸고 사부 대중이 꾸준히 실천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한국불교의 중추를 담당하는 청년불자 여러분!**

대한불교청년회 초대 총재이신 만해 선사는

성공보다는 옳은 일인가를 먼저 살피라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는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를 먼저 살피지 말고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쉽고 성공할 수 있

는 일이라도 그 일이 근본적으로 옳지 못한 일이라면, 한때 성공을 하였을지라도 결국에는 파탄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땅에 비추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면 용감하게 추진하라고도 하셨습니다. 가시밭을 걷고 칼날 위에 서서 정의를 위하여 싸운다는 통쾌한 느낌을 가지라는 가르침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려움이 많을수록 칼날을 밝고 서서 옳고 그른 것을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교훈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해선사와 조선불교청년회 선배님들의 화두가 ‘조선의 독립’을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것이었다면, 대한불교청년회와 청년 불자들의 화두는 우리 민족문화를 지켜내고 ‘자성과 쇄신 결사’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 불교의 자존과 존엄을 세워 불교중흥을 맞이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길이 비록 한순간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하는 길이라면 희망찬 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청년 불자의 본성이고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불교청년회가 한국불교의 중추를 담당하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로 나서고자 한다면 대한불교청년회 총재인 본인도 청년 불자와 함께 그 길에 함께 할 것입니다.

불기2555년 6월11일

대한불교청년회 총재 자승 합장